

보건복지 ISSUE & FOCUS

신혼부부의 일자리 및 주거 변동과 출산¹⁾

조성호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이 글에서는 신혼부부의 일자리 및 주거의 변동과 자녀 수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분석 결과, 신혼부부 남편의 일자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아내는 결혼 이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여전히 다수를 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혼부부의 일자리 질은 유사한 연령대의 미혼 남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신혼부부는 보증부 월세 및 전세에서 자가로,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서 아파트·주상복합으로 이동하려 하며, 신혼집 마련 비용은 수도권(서울·경기)과 지방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주택 마련은 미혼 남녀의 결혼 이행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의 출산 이행에도 중요한 요인이므로, 신혼부부가 주택을 마련할 때, 특히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소득 및 대출금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수도권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비용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01. 들어가며

◆ 2020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 및 세계에서조차도 최저 수준인 0.84명을 기록하였음.

- 기혼 여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거나(2.16명) 기대하는(1.92명) 자녀 수²⁾는 실제 자녀 수와 괴리가 있음. 이것은 곧 현재의 삶이 자녀를 낳고 기르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함.
- 따라서 현재 기혼 여성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만큼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임.

1) 이 글은 조성호, 변수정, 김문길, 김지민(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과를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한 것임.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 ◆ 유배우 여성의 출산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 출산에 음(-)의 영향³⁾, 주거가 자가인 경우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⁴⁾ 일자리와 주거가 출산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남.
- ◆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출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신혼기 부부의 일자리 및 주거 변동과 자녀 수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현재 통계청에서 신혼부부 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나 이것은 현재 시점의 신혼부부 통계치를 산출한 것인 데 비하여, 이 글에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가족 형성기(최종 학교 졸업, 교제, 결혼, 첫째아 출산, 둘째아 출산)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주거 변동을 파악함.
 - 미혼 남녀가 결혼하여 출산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일자리와 주거의 변동을 살펴본 것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남녀 매칭 이전과 이후의 일자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사한 연령대 미혼 인구의 일자리 관련 수치를 산출하여 신혼부부와 비교하였음.
 - 또한, 통계청의 신혼부부 통계는 혼인 신고 이후 5년 이내의 부부를 신혼부부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녀 수도 5년 이내 부부의 평균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결혼 후 7년 이내인 부부를 신혼부부로 정의하여 분석하였음. 특히 자녀 수와 관련해서는 출산 완료 시점을 고려하여 결혼한 지 5년이 넘은 부부의 자녀 수를 파악하였음.
- ◆ 이 글에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
 - 이 조사는 최근 신혼부부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반영하여, 결혼 후 7년 이내의 부부를 신혼부부로 정의하고, 만 18~49세 남녀를 대상으로 2019년 9월 2일부터 한 달여간 조사함.
 - 이 자료는 부부를 쌍(pair)으로 조사한 것(면접 조사)이 특징으로, 신혼부부 1,779쌍, 총 3,558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함.
 - 생애주기별(최종 학교 졸업, 배우자의 교제·결혼·출산)로 일자리와 주거의 변화를 회고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각 시점의 일자리와 주거 변화를 파악함.

.....

3) 류기철, 박영화. (2009). 한국여성의 출산율 변화와 출산간격 영향요인. 한국인구학, 32(1), 1-23.

조성호. (2016). 결혼 및 자녀 출산에 관한 한일 비교분석. 보건사회연구, 36(1), 143-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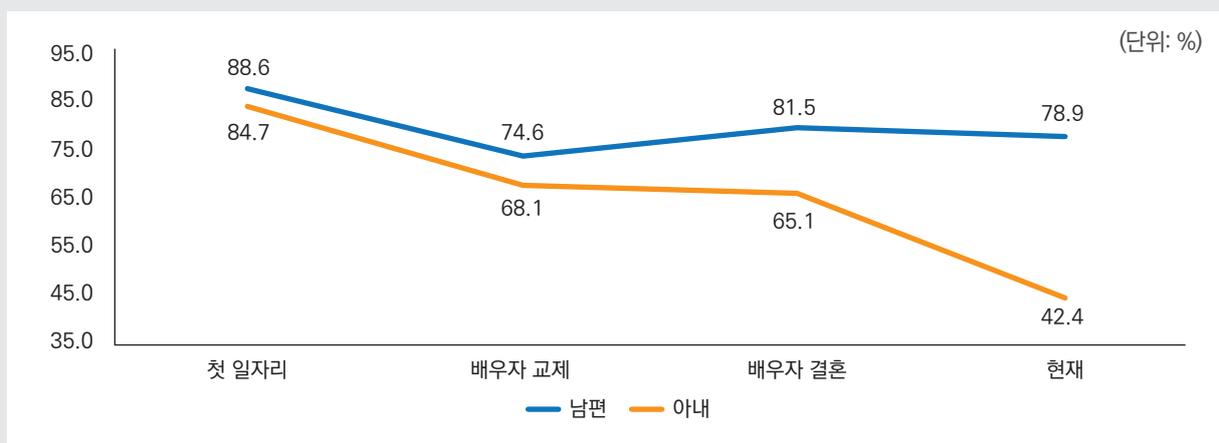
4) 배호중, 한창근. (2016). 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3), 204-238.

02. 신혼부부의 일자리 변동⁵⁾

1) 일자리 경험 비율⁶⁾

- ◆ 일자리 유무를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첫 일자리를 가진 경험이 있는 비율은 88.6%였으나, 배우자와 교제할 당시에 일자리가 있었다는 응답 비율은 74.6%로 감소하였고, 이후 배우자와 결혼을 한 시점에는 그 비율이 81.5%로 증가하였으며, 현재에도 비슷한 수준(78.9%)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아내는 첫 일자리 비율이 84.7%였으나, 교제 시점에는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1%로 감소하였고, 배우자와 결혼한 시점에도 약간 감소하여 65.1%를 기록함.
 - 현재 시점에는 그보다 더욱 감소한 42.4%로 나타나, 결혼 이후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이는 결혼 이후 경력단절 등으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이하, 출산력 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유사한 연령대의 미혼 남녀가 일자리를 가진 비율을 산출한 결과, 남성은 60.1%, 여성은 62.9%로 나타남. 이와 비교할 때, 본 조사의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의 첫 일자리부터 결혼 시점까지의 일자리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

[그림 1] 가족 형성기 시점별 일자리 경험 추이: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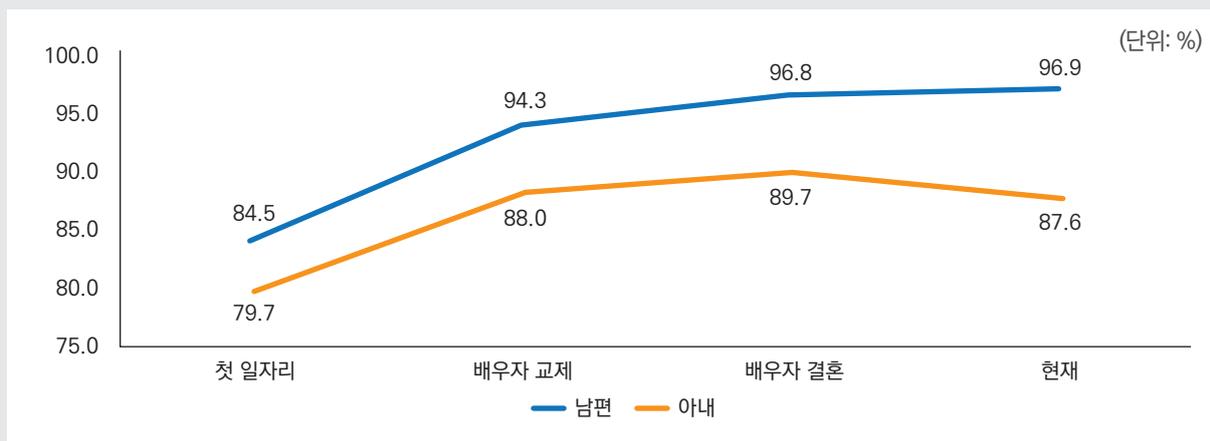
5) 신혼부부의 일자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사한 연령대 미혼 인구의 일자리 관련 수치를 산출하여 비교하였음.

6) 여기에서는 주 1시간 이상 일하여 소득을 창출한 경우와 주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도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정의함.

2) 정규직 비율

- ◆ 남편의 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첫 일자리에서 84.5%, 배우자와의 교제 시 94.3%, 결혼 시 96.8%, 현재 96.9%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아내의 정규직 비율은 첫 일자리에서 79.7%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배우자와의 교제 시에는 88.0%, 결혼 시에는 89.7%로 나타났으며, 이후 약간 감소하여 현재 시점에는 87.6%로 나타남.
- ◆ 출산력 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20~44세 미혼 남녀의 정규직 비율을 산출한 결과, 남성 63.6%, 여성 62.6%로 나타났음. 이와 비교하면 신혼부부의 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 가족 형성기 시점별 정규직 비율 추이: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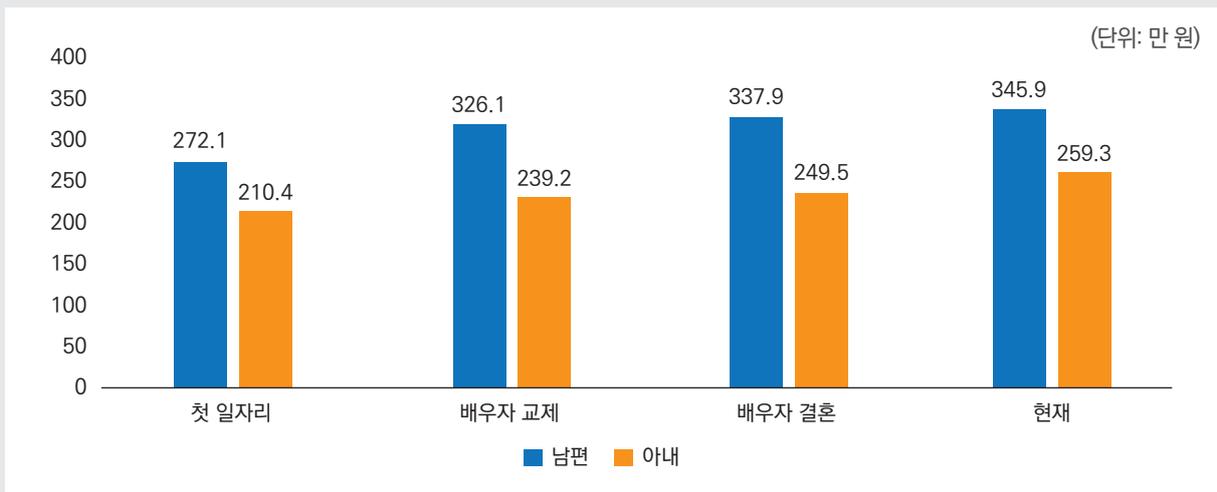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3) 소득

- ◆ 남편의 첫 일자리 소득은 272만 1,000원이었으나, 배우자와의 교제 시에는 급격히 증가하여 326만 1,000원이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결혼 시에 337만 9,000원, 현재 시점에는 345만 9,000원으로 나타남.
- ◆ 아내의 첫 일자리 소득은 210만 4,000원으로 남편과는 61만 7,000원 차이가 남.

- 이후 소득이 증가하여 배우자와의 교제 시에는 239만 2,000원이었으나, 남편과의 소득 격차는 첫 일자리보다 더 벌어져 86만 9,000원으로 증가함.
 - 결혼 시의 소득은 249만 5,000원으로 교제 시보다 약 10만 원 증가하였으나, 남편과의 소득 격차는 88만 4,000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현재 소득은 259만 3,000원으로 첫 일자리 시기부터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남편과의 소득 격차는 약간 감소하여 86만 6,000원으로 나타남.
- ◆ 출산력 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20~44세 미혼 남녀의 소득을 산출한 결과, 남성은 262만 7,000원, 여성은 147만 9,000원으로 나타남. 이와 비교하면 신혼부부의 소득이 매우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 가족 형성기 시점별 소득 추이: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03. 신혼부부의 주거 변동

1) 결혼 이전 주거

- ◆ 결혼 전 같이 산 사람이 부모 및 조부모인 경우
 - 남편은 최종 학교 졸업 시점에 80.8%, 첫 일자리 당시 76.3%, 배우자와의 교제 시에는 69.3%로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아내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점차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남편보다 약 5%p의 차이로 높은 편임.

◆ 결혼 전에 혼자 산 경우

- 남편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 시점에 15.0%였던 것이 첫 일자리 당시에는 19.4%, 배우자와의 교제 시에는 27.2%로 증가함.
- 아내도 남편과 유사하게 점차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남편에 비해 3~7%p 정도의 차이로 낮은 편임.

〈표 1〉가족 형성기 시점별 같이 산 사람: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단위: %)

	같이 산 사람	최종 학교 졸업	첫 일자리	배우자 교제
남편	부모 및 조부모	80.8	76.3	69.3
	없음(혼자)	15.0	19.4	27.2
아내	부모 및 조부모	84.3	81.0	75.5
	없음(혼자)	12.3	15.1	20.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 결혼 전 살았던 주택 유형이 아파트·주상복합인 경우

- 남편은 최종 학교 졸업 시점에 44.1%, 첫 일자리 시점에 43.9%로 나타났으나,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는 46.3%로 증가하였음. 아내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패턴으로 증가하였음.

◆ 결혼 전 살았던 주택 유형이 다세대주택(원룸 등)인 경우

- 남편은 최종 학교 졸업 시점에 10.4%, 이후 첫 일자리 시점에 12.0%, 배우자와의 교제 당시 12.4%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아내도 최종 학교 졸업 시 9.1%에서 이후 첫 일자리 시점,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 각각 10.3%, 11.5%로 점차 증가하였음.

〈표 2〉 가족 형성기 시점별 주택 유형: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

(단위: %)

	주택 유형	최종 학교 졸업	첫 일자리	배우자 교체
남편	아파트·주상복합	44.1	43.9	46.3
	다세대주택(원룸 등)	10.4	12.0	12.4
아내	아파트·주상복합	50.1	50.3	52.0
	다세대주택(원룸 등)	9.1	10.3	11.5

주: 주거 형태는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주상복합,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원룸 등), 오피스텔, 기타 중에서 아파트·주상복합과 다세대주택(원룸 등)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전체의 합이 100%가 아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2) 결혼 이후 주거

◆ 결혼 이후의 주택 유형 변화

-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신혼)에는 아파트·주상복합에 사는 비율이 64.7%였으나 첫째 자녀 출산 시점에 70.4%로 나타났고 현재는 69.9%로, 결혼 당시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짐.⁷⁾
- 연립주택 거주 비율은 결혼 시점 12.6%에서 첫째 자녀 출산과 현재 시점에 각각 12.2%, 11.4%로 감소함.
- 다세대주택(원룸 등) 거주 비율은 결혼 시점 10.7%에서 첫째 자녀 출산, 현재 시점에 각각 7.9%, 8.4%로 감소함.

〈표 3〉 가족 형성기 시점별 신혼부부의 주택 유형

(단위: %)

주택 유형	배우자 결혼(신혼)	첫째 자녀 출산	현재
아파트·주상복합	64.7	70.4	69.9
연립주택	12.6	12.2	11.4
다세대주택(원룸 등)	10.7	7.9	8.4

주: 주거 형태는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주상복합,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원룸 등), 오피스텔, 기타 중에서 아파트·주상복합과 다세대주택(원룸 등), 연립주택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전체의 합이 100%가 아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

7) 단, 첫째 자녀 출산 시점에는 첫째를 출산한 샘플만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는 출산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시점들이 순서대로 가는 것은 아니며, 엄밀하게는 결혼 시점과 첫째 자녀 출산 시점을 비교하고, 결혼 시점과 현재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비교하면 결혼 시점보다 아파트·주상복합에 사는 비율이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임.

◆ 결혼 이후의 주택 점유 형태 변화

- 주택 점유 형태에서 자가의 비율은 결혼 당시에는 29.7%였지만 첫째 자녀 출산, 현재 시점에 각각 34.7%, 35.1%로 증가함.
- 전세의 비율은 결혼 시점에 53.7%였으나 첫째 자녀 출산, 현재 시점에 각각 51.8%, 50.0%로 감소하였으며, 보증부 월세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음.
- 즉, 신혼부부는 전세 및 보증부 월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려 하며,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서 아파트·주상복합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표 4〉 가족 형성기 시점별 신혼부부의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주택 점유 형태	배우자 결혼(신혼)	첫째 자녀 출산	현재
자가	29.7	34.7	35.1
전세	53.7	51.8	50.0
보증부 월세	8.6	6.1	7.4

주: 주거 형태는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주상복합,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원룸 등), 오피스텔, 기타 중에서 아파트·주상복합과 다세대주택(원룸 등), 연립주택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전체의 합이 100%가 아님.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 신혼집 마련 비용

- 신혼집 마련 비용은 자가가 2억 6,188만 원, 전세가 1억 8,171만 원이고,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 5,282만 원에 월세 33만 1,000원, 보증금 없는 월세는 20만 7,000원, 기타가 47만 9,000원임.
- 신혼집 마련 비용은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큼. 서울·경기 신혼집과 그 외 지역의 비용 차이를 보면, 자가가 2억 3,145만 원, 전세가 1억 1,766만 원으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표 5〉 신혼집 마련 비용

(단위: 만 원)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매매가	보증금	보증금	월세		
전체	26,188.0	18,171.5	5,282.2	33.1	20.7	47.9
지역						
서울·경기	40,481.9	21,753.4	7,623.6	37.7	-	42.4
광역시	23,052.2	15,031.4	5,677.8	29.2	30.0	-
그 외	17,336.4	9,987.4	2,639.9	30.9	18.2	52.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04. 신혼부부의 출산 이행

◆ 신혼부부의 결혼 연차별 자녀 수 분포

- 연차별로 자녀가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1년 차 2.1%, 5년 차 89.6%, 7년 차 93.8%로 나타남.⁸⁾

〈표 6〉 신혼부부 연차별 자녀 수 분포

(단위: %)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	7년 차	합계
0명	97.9	71.8	47.8	29.3	10.4	9.0	6.2	38.2
1명	2.1	26.9	49.6	54.2	59.7	45.3	37.7	38.2
2명 이상	0.0	1.3	2.7	16.6	29.9	45.7	56.1	23.6
합계	13.3	16.8	12.6	11.5	12.4	12.5	20.9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 신혼부부는 결혼 후 5년 이내에 대부분 출산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⁹⁾ 5년이 넘어가는 부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함.

◆ 종사상 지위별 자녀 수

- 남편이 상용직인 경우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비율이 53.9%이며, 자영업도 2명 이상 비율이 52.2%로 높게 나타남.¹⁰⁾
 - 평균 자녀 수는 상용직 1.48명, 자영업 1.45명으로 상용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아내가 상용직일 경우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비율이 42.9%이고, 임시직은 53.9%, 자영업은 42.4%로 나타남.¹¹⁾
 - 평균 자녀 수는 상용직 1.31명, 임시직 1.46명, 자영업 1.27명으로 임시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8) 이 수치는 통계청의 신혼부부 통계와 차이가 있음. 가장 큰 차이는 통계청이 신혼부부를 정의하는 기간의 기준이 5년 이내인 데 비하여 이 조사에서는 7년 이내로 한정된 점임. 또 신혼부부 통계는 전수조사인 반면, 이 조사는 표본조사로서 표본추출에 따른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혼부부 통계와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9) 이상림, 이지혜. (2018). 시·군·구 지역 출산율과 신혼부부 비율, 보건복지 ISSUE & FOCUS, 35.

10) 임시직은 총샘플 수가 3명으로 비교하기 어려움.

11) 일용직과 무급가족종사자의 총샘플 수가 각각 3명으로 비교하기 어려움.

〈표 7〉 종사상 지위별 자녀 수: 남편

(단위: %, 명)

	0명	1명	2명 이상	합계(N)	평균 자녀 수
상용직	6.3	39.9	53.9	100.0(416)	1.48
임시직	33.3	33.3	33.3	100.0(3)	1.00
자영업	7.5	40.3	52.2	100.0(67)	1.45
합계(N)	6.6	41.0	52.4	100.0(546)	1.46

주: 일용직과 무급가족종사자는 0명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표 8〉 종사상 지위별 자녀 수: 아내

(단위: %, 명)

	0명	1명	2명 이상	합계(N)	평균 자녀 수
상용직	11.7	45.5	42.9	100.0(154)	1.31
임시직	7.7	38.5	53.9	100.0(13)	1.46
일용직	0.0	66.7	33.3	100.0(3)	1.33
자영업	15.2	42.4	42.4	100.0(33)	1.27
무급가족종사자	0.0	33.3	66.7	100.0(3)	1.67
합계(N)	7.1	40.3	52.7	100.0(509)	1.4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 주택 소유 형태별 자녀 수

- 주택 소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인 비율이 56.8%, 전세는 1명이 50.0%, 보증부 월세는 2명 이상이 60.5%, 무상은 2명 이상이 57.1%로 각 범주별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평균 자녀 수는 자가 1.50명, 전세 1.37명, 보증부 월세 1.53명, 무상 1.46명임.
- 일반적으로 주거의 이동이 ‘월세 → 전세 → 자가’이고 자가인 경우의 자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면, 자가의 자녀 수가 가장 많아야 하겠지만¹²⁾ 보증부 월세의 자녀 수가 가장 많고 전세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이 연구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과 신혼부부의 경우 주거 이동 과정에서 자녀 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전세로 살고 있는 신혼부부는 자가로 이동하기 위하여 출산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또한 원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증부 월세로 살고 있는 부부는 대부분 가구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¹³⁾ 자녀를 많이 출산한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의 주거 이동 욕구가 전세 거주 부부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사료됨.

12) 최은영, 박영실(2010),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2010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11권 2장, pp. 58-118, 통계청)에서는 주거가 자가이면 출산율이 높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13) 주택 소유 형태별 평균 가구소득은 자가 532만 원, 전세 529만 원, 보증부 월세 463만 원, 무상 458만 원으로 나타남.

〈표 9〉 주택 소유 형태별 자녀 수

(단위: %, 명)

	0명	1명	2명 이상	합계(N)	평균 자녀 수
자가	7.1	36.1	56.8	100.0(310)	1.50
전세	6.6	50.0	43.4	100.0(212)	1.37
보증부 월세	7.0	32.6	60.5	100.0(43)	1.53
무상	10.7	32.1	57.1	100.0(28)	1.46
합계(N)	7.1	40.6	52.3	100.0(593)	1.4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05. 나가며

- ◆ 이 글에서는 출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기인 신혼기 부부의 일자리 및 주거의 변동과 자녀 수에 대해 분석하였음.
 - 신혼부부의 생애주기적 측면에서 신혼부부 남편과 아내가 최종 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만나 결혼하고 출산하는 시점의 일자리와 주거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함.
- ◆ 남편의 일자리 경험 비율은 첫 일자리부터 현재까지 비교적 큰 변동 없이 80% 내외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내는 첫 일자리 이후 일자리 경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특히 결혼 이후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결혼 이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여성이 여전히 다수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 줌. 여성 노동 공급 곡선의 M자 형태가 완화되고 있는 것은 미혼 여성 인구와 이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결과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음.¹⁴⁾
 - 따라서 결혼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 ◆ 신혼부부의 일자리 경험, 정규직 비율, 소득을 미혼 남녀와 비교한 결과, 신혼부부의 일자리 질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그림 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는 아내의 비율이 낮으므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며, 따라서 미혼 인구와 비교하여 일자리의 질이 높은 것으로 생각됨.
 - 또한 남편의 일자리 질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결혼 시장에서의 남녀 매칭이 양극화되어 가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됨.

.....

14) 즉, M자 형태가 완화되고 있는 연령 지점의 미혼 인구 비율이 비혼화 및 만혼화로 인하여 이전보다 높아졌고, 이들의 취업 비율이 높으므로 M자 형태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이는 여성의 노동 공급 곡선이 혼인 관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됨.

- ◆ 신혼부부는 보증부 월세 및 전세에서 자가로 주거 이동을 하려 하며,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서 아파트·주상복합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나타남.
 - 신혼집 마련 비용은 지역별 격차가 매우 컸으며, 특히 수도권(서울·경기)과 지방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수도권 신혼부부들의 주택 마련 비용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더욱 필요할 것임.
- ◆ 남편이 상용직인 경우에 평균 자녀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내는 임시직인 경우에 평균 자녀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자녀 출산에서 일자리 안정과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함.
- ◆ 주택 소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와 보증부 월세인 경우에 평균 자녀 수가 많은 편이었고, 전세인 경우에는 평균 자녀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주거의 이동을 ‘월세 → 전세 → 자가’, 자산의 크기를 ‘월세 < 전세 < 자가’라고 한다면, 전세의 평균 자녀 수가 월세보다 많아야 하지만, 분석 결과에서는 보증부 월세보다 전세가 낮게 나타남.
 - 전세로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는 부부보다 자가로의 주거 이동을 위하여 출산을 억제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생각됨.
- ◆ 주택 마련은 미혼 남녀의 결혼 이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 이는 신혼부부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므로 결혼과 출산의 상관성이 큰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출산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신혼부부 관련 주택 정책에서는 부부 모두 초혼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일 경우, 가능한 한 소득 및 대출금 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및 상향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자녀의 출산과 맞물려 주거 상향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자녀 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집필 조성호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 044-287-8187